

## 예수께서 오신 목적 *The Reason Why Jesus Came To Us* 누가복음(Luke) 4:16-21

성탄절'을 뜻하는 영어 '크리스마스' 라는 말은 '그리스도' 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 '그리스도의 축제' 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기념일이 성탄절이라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그를 작게 만드셨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종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절란 뜻이다.

The word Christmas is formed from two words, "Christ" and "Mass" (Mass of the Christ). To put it simply, Christmas is a day that we celebrate Jesus' coming to the world. Martin Luther said, "God made him small." God who is higher than high came in the form of a servant.

따라서 성탄절은 '탄생' 혹은 '나심'의 의미보다 '오심'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성탄인 것이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규례대로 성경을 읽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밝히고 있다.

Christmas signifies more of "the coming of" rather than "the birth of."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This is what Christmas means. As we read in today's scripture, it is recorded that Jesus went to Nazareth, where He was brought up, and on the Sabbath day He went into the synagogue, as was His custom. And He told them why He came to the world.

첫째,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본문 18 절에 '주 여호와와 기운이 나를 휘감아 돌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로 세우시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라고 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신명기 18:15-18 에서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음을 의미해 주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시려고 하신 복음이 무엇인가? First, Jesus came to spread the good news to the poor. In verse 18 it says,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As it was prophesized in Deuteronomy 18:15-18, Jesus is that very prophet who had come to preach the good news to the poor in spirit. If that is the case, what exactly is the good news Jesus had come to tell the poor in spirit?

'복음'(福音)이란 글자 그대로 '복 된 소리'란 뜻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시려고 하신 복 된 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 하신다는 구원의 소식이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소식이다.

The word "good news" in Korean is "bok-eum." "Bok" means good or fortune and "eum" means sound. So it literally means "good sound" or in English "good news." The good news Jesus had come to spread was that God wanted to save the sinners. In other words, the Good News was that God had sent Jesus Christ as the Messiah to save the sinners of this world.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란 원래 상처나 억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고 있다. 미국에서 한 심리학 교수가 40여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통해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라는 심리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러자 ‘추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휴가’, ‘캐럴’, ‘산타클로스’ 등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통해 연상되는 것이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를 적어낸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In today's scripture, "the poor" means people who are wounded, oppressed, and anguished. However, the poor in spirit are actually those who are living their lives waiting for God to send them a messiah. A psychology professor asked 40 students to write down what comes to their mind when they think of the word Christmas. A variety of responses were given: tree, thorny plant, presents, turkey, vacation, carol, Santa Claus, etc ... Yet, sadly, the word, Jesus was not given as even one response.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예수’를 머리에 떠올려야 하는데, 아무도 예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성탄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의 복음 때문이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구원의 소식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다.

The first thing that should come to our mind when we hear the word, Christmas is Jesus. No one had associated or thought of Jesus as their response. What is the great joy of Jesus coming from on high to be with us humans? It is the Good News. Jesus' message of salvation makes it great and joyous news.

둘째,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본문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라는 말은 예수님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와 같은 말이다. 따라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이라고 한 말은 예수님은 포로 된 자를 해방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의미한다. ‘포로 된 자’란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을 가리킨다.

Secondly, Jesus has come to set the captives free. In verse 18 of today's scripture, "he has anointed me" is telling us that Jesus Christ is the anointed one. The word "Christ" means Messiah. Therefore, in the verse "he has anointed me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 the 'he' is Jesus, the Messiah, and He was sent to us, the prisoners, free. Prisoners are those that are bound in sin.

요한복음 8:34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하였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의 포로로 태어났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의 포로로 태어난 인류를 해방시켜 자유 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것이다. 죄의 포로가 된 인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방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유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If we look in the Gospel of John 8:34 it says, "I tell you the truth,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After the fall of Adam and Eve, everyone without exception is slave to sin from birth. That is why Jesus came as the Messiah to free us from the bondage of sin. No one but Jesus can save us from our sins. He is the only one who can give us freedom from our life as slaves to sin.

그리고 죄의 포로가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인류들을 죄의 포로에서 속량하는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값을 주시고 사신 후 자유하게 하신 것이다.

Jesus, who came to save us from the bondage of sin said, “It is finished” just before He gave up His spirit as He died on the cross. Jesus has paid the price of our sin by dying on the cross for us. Jesus has redeemed us and released us from the bondage of sin by paying the price for us.

세째,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본문에서 말하는 ‘눌린 자’란 말은 ‘상처나다, 산산이 부서지다, 박살나다’는 뜻이다. 이사야 61:1 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눌린 자’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의미한다.

Thirdly, Jesus came to free the oppressed. In today’s text, the oppressed are people who are injured or shattered to pieces. In Isaiah 6:1 the oppressed is expressed as the brokenhearted. So the oppressed we are speaking of today are considered as those who are constrained by troubles and worries and are broken hearted. That is why Jesus came “to release the oppressed” from worries and anxieties of this world by giving them true peace and freedom.

죄의 포로가 된 인간은 죄악의 고통뿐만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마음의 고통을 받아 정신적인 억압 속에 눌러 살아가게 된다. 그리하여 그 영혼과 마음이 모두 포로가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혼과 마음이 포로가 된 자는 육신적인 평안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알지 못하는 불안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들이 모두 눌린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눌린 자가 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Those who are slaves to sin have not only the pain of sin, but they are also captives to the worries of the world and live in mental oppression from their broken heartedness. So they live their spiritual and physical lives as prisoners of sin. They cannot rightfully experience peace in their lives. The reason people suffer from stress and the pressure from life’s demands is because they are slaves to sin. Jesus came to set us free from our bondage in life as slaves to sin.

때문에 예수님은 마 11:28 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셨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모두 그에게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에게 나아와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고까지 대신 져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It is written in Matthew 11:28,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If we unload all of our heavy burdens to Him, He has promised to give us peace and joy. Come to Him and give up all the burdens that suppress us and He will give us peace

and joy that the world cannot give. Jesus bore all our iniquities and our burdens when He died on the cross for us. So if we just cast all our burdens on Him, He will give us freedom.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희망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다. 빛진 자들은 빛이 탕감되어 채무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며, 노예들은 고통스러운 노예생활에서 해방되어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다.

The reason Jesus came to this earth is to proclaim hope. This is a proclamation of freedom for everyone. Debtors debts are cancelled and they are no longer liable; slaves are freed from their suffering and bondage and they are able to return home to their families.

2 천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 희망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사단에게 팔아버린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성탄절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희망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이다. 성탄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 희망의 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기뻐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의 뜻을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린다.

Over 2,000 years ago, Jesus died on the cross and was resurrected. He gave us hope and eternal freedom over sin and death. After the fall of Adam and Eve, all humankind was doomed spiritually and physically. But because of Jesus,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once again restored. Christmas should be a time when we remember that Jesus came to proclaim God's eternal hope. As we celebrate Christmas Sunday, I pray that all of us will joyfully accept and realize that Jesus came to us to save us, and give us eternal hope of a new life in Him.